전남도, 올해 여성 일자리 9000개 연계

40억 여원 들여 10월 말 기준 8157개 연계

노무 · 심리상담 ·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전남도는 올해 40억여 원을 들여 10월 말 기준 경력단절여성에게 8157개의 일자리를 연계했으며, 연말까지 9000여 개를 넘을 전망이라고 11일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은 임신 · 출산 · 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바라는 여성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혼 여성 두 명 중 한 명 꼴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현실에서 여성이 경력단절 걱정 없이 육아를 하며 일 · 가정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취업한 여성의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채용 기업에 대한 환경 개선, 여성 친화 일촌기업 협약,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는 늘어나는 여성 창업 수요에 맞춰 전남광역새일센터에 창업 전담인력을 확충해 노무와 심리상담과 직장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경력단절 예방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전남 여성일자리박람회'는 2011년 이후 올해 여덟 번째로 목포, 여수, 순천, 나주에서 권역별로 개최해 879개 기업과 1829개 여성 일자리를 발굴했다.

올해 처음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열어 3단계 심사를 통해 예비 창업여성 10명에게 창업 정착금을 지원했다.

허강숙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단계별 직업교육훈련과 고충 상담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새일센터는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지정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연계? 제공하는 여성 전문 취업기관이다. 전국 156개소 중 전남지역에는 전남광역,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화순, 영암, 장성, 총 9곳이 있다.

2017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남지역 경력단절 여성은 5만 6000 명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새일센터 이용자 1만 8000여 명 가운데 8800여 명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형일자리 성공 추진을 위한 시민 염원 서명 전달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여섯번째)이 10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이정재 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광주형일자리 성공 추진을 위한 시민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받은 뒤 참석자들과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율촌1산단, 행정구역 겹쳐 기업 활동 제약

김기태 의원, 조정 절차 마련 촉구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 · 순천1)은 최근 산업단지 내 행정구역이 겹쳐서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지난 94년부터 낙후지역을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율촌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여수시 236만4천㎡, 순천시 387만4천㎡, 광양시 287만㎡에 거쳐 율촌1산단이 조성되었고, 현재 14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해면은 바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놓고, 지난 2003년 순천시와 광양시 간 소송분쟁이 있었고, 아직도 220여개 지자체 간 해묵은 갈등은 해소 되지 않고 있다.

실제 율촌산단 내 행정구분기준이 필지별로 되지 않고, 매립 전 해상경계로 이루어지다보니, 세아제강의 경우 여수, 순천, 광양 3개시에 걸쳐 주소를 두고 있고, 현대제철 등 10개 기업은 2개 시 이상에 걸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김기태 의원은 "지자체 간 관할구역 중첩으로 인한 기업 활동 불편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세와 관할구역에 대한 각 지자체 간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서 행정구역 중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16년 논쟁 끝'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평가 · 개선 세미나

"객관적 평가 자리…현실적 · 참신한 방안 기대"

16년 논쟁의 마침표를 찍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평가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세미나가 12일 오후 2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언론학회와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 · 반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활동가, 언론인, 갈등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객관적 평가와 더불어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세미나는 두 개의 큰 주제로 열린다. 먼저 광주 공론화 추진 경과와 평가는 김기태 호남대 신방과 교수이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위원이 발제한다. 구길용 뉴시스 광주전남취재본부장을 비롯, 이남재 시사평론가, 김봉철 조선대 신방과 교수, 이강원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한다.

두번째 광주 공론화 경험을 통한 개선과제는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이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장이 직접 발제한다. 김재현 KBC광주방송 기자를 비롯, 박선희 조선대 신방과 교수, 서정훈 광주 NGO센터장, 홍기학 동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이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한다.

이정석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이번 세미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협치모델을 만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노하우 공유와 더불어 공론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는 자리"라며 "광주지역 실정에 맞게 보다 현실적이고, 참신한 발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구, 건강도시 선포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광주 동구는 11일 동구치매안심센터에서 건강도시 선포 11주년을 기념하는 '건강도시 다지기&넓히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동구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동구가 지난 2007년 건강도시에 가입해 펼친 다양한 관련정책 추진성과와 미래비전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상호 협력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로, 동구는 그동안 건강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구,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광주 서구가 사전 신청을 받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 ·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 복지사각지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이번에 완화된 기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신청한 가구의 부양의무자 세대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구, 동절기 건축 공사장 25곳 일제 점검

광주 남구는 동절기 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25곳 건축 공사장을 일제 점검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동절기 건축 공사장 안전 지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연면적 1,000㎡ 이상으로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사항은 공사 현장의 지반 안전성 및 석축, 옹벽, 절개지 등에 대한 위험요소 여부, 공사장 내 위해시설 방치 여부, 공사 관련 차량이 도로변을 장악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인도에 물건을 적치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공사용 가설 시설물의 안전성 검사 및 공사 안내 표지판의 부착 여부,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관리 상태 등도 점검한다.

북구, 저소득층 신용 서포터즈 발대식

광주 북구는 오는 12일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과 최접점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과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신용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복지 주요 대상인 저소득 취약계층이 2만2000여 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북구는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신용서포터즈는 복지상담을 통한 금융소외계층 발굴, 건전한 금융생활 캠페인, 불법사금융 광고 단속 등에 나선다.

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펼친다.

광산구, 주민참여로 새로 태어난 장수천근린공원

광주 광산구가 11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남2지구 장수천근린공원을 새 단장하고 주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다.

이번 리모델링을 위해 광산구는 10~11월 세 차례 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원 설계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에 공원을 이용할 주민을 참여시켰다.

그 결과 주민 요구사항이었던 벚나무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잔디광장, 야외무대, LED장미정원 등 시설이 공원에 들어섰고, 사계절 꽃나무도 조성됐다.

임형택 기자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설립 ■기장대리
■양도상속증여 ■건설면허신청
■기업진단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 미래창조 ·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